

아버지 우울 변화 양상에 따른 양육행동 및 자녀의 문제행동, 학교적응 차이 비교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Classifying Fathers' Depression Trajectories and Its Influences to Parenting Practices and Their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8년까지의 아버지의 우울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잠재집단에 따라 2년 후의 아버지 양육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2011년)부터 8차년도(2015년)의 5개년도 자료와 10차년도(2017년) 자료의 1,172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8년까지의 아버지 우울의 변화 궤적은 고수준 변화형 집단,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의 3개의 잠재집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5년 동안 계속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인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은 고수준 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고수준 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은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고수준 변화형 집단,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 순으로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수준 변화형 집단이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경우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이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녀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행동을 많이 보일 때 아버지의 우울 수준을 함께 고려한 상담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father's depression and the changes of relevant parenting practice in fathers' as well as the problematic behaviors and school adaptation of their children. To address these goals, the data from 1,172 samples from the 4th to 8th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fathers' depressive levels a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groups: 1) the high-changing group, 2) the middle-low changing group, and 3) the low-low changing group. The results also revealed that the fathers within the low-low changing group practiced more authoritative but permissive parenting than the fathers in the two other groups. Children from high-changing group showed more problematic behaviors than the children of the two other groups. In addition, the children from the low-low changing group reported higher school adjustment such as academic achievements, and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further studies.

Keywords : Father's Depression, Parenting Practices, Problematic Behaviors, School Adjustment,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December 16, 2019

Accepted April 3, 2020

Revised January 21, 2020

Published April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아버지는 양육 및 자녀 발달과정에서 어머니와 구분되는 고유한 역할을 한다[1]. 아버지는 어머니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에도 자녀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특히 일부 해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 특성보다 자녀의 특정 발달과 관련해서는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3]. 자녀 발달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여전히 많은 연구는 어머니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 특히 부모의 부정적 심리적 특성인 우울은 자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행동, 자녀의 발달 특성과의 관계 탐색에 집중하고 있다[4-6]. 아버지 우울과 관련된 연구 또한 대다수 횡단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녀 출생 이후부터 아버지의 우울이 어떻게 변화하고, 아버지 우울의 변화가 자녀 발달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8년까지의 아버지 우울 수준의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잠재집단에 따라 초등학교 시기의 아버지 양육행동, 자녀의 문제행동,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우울은 신체적, 정신적 디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나타나며, 양육의 질을 감소시키는 중요 요인이다[7 재인용]. 이에 부모의 우울 수준은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 및 자녀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낮으며, 자녀의 반항 행동, 정서통제 곤란, 문제행동, 사회성의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8-10]. 아버지의 우울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통제했을 때에도 아버지-자녀 간 갈등을 매개로 자녀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는 아버지의 우울이 긍정적 양육행동 및 부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12]. 즉,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참여 및 긍정적 양육행동을 줄이고, 역기능적 가족관계를 유발하기 때문에[13-15]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이전시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의 아버지의 우울 변화 패턴이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가 보이는 권위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양육행동은 자녀 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16-18]. 권위적 양육행동은 자녀에 대한 애정 및 관여 수준이 높고, 이성적 설명, 민주적 관계, 친절/편안함을 보이는 합리적인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화내기, 처벌, 비이성적 벌주기 전략, 지시의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허용적 양육행동은 방관, 일관성의 부족, 확신이 부족한 양육방식을 의미한다[19-21].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10, 22]. 일부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촉발해서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23]. 아버지대상 연구 또한 아버지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4-25].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제시하면, 첫째, 부모의 우울에 대한 다수 연구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우울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둘째, 아버지 우울 관련 연구들이 대다수 횡단 자료를 활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8년까지의 아버지의 우울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을 경험적으로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의 아버지의 우울 변화 특성이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자녀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8년까지의 아버지의 우울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잠재집단에 따라 2년 후의 아버지 양육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1) 아버지의 우울 변화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확인한다.
- 2) 아버지 우울 잠재집단에 따라 아버지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3) 아버지 우울 잠재집단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패널 자료인[21] 한국 아동패널 4차년도(2011년)부터 8차년도(2015년)의 5개년도 자료와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 아동패널의 아버지 우울 데이터는 4차년도(2011년)부터 8차년도(2015년), 10차년도(2017년)의 6개년도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자료인 4차년도(2011년)부터 8차년도(2015년)의 아버지 우울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 변인의 데이터가 있는 1,17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아버지의 우울

자녀 출생 후 4년(4차년도 2011년 자료)부터 8년(8차년도 2015년 자료)까지의 아버지의 우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5개년도의 동일한 각 6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버지가 5점 Likert 척도('전혀 안 느낌(1점)' ~ '항상 느낌(5점))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4차 $\alpha=.91$, 5차 $\alpha=.91$, 6차 $\alpha=.91$, 7차 $\alpha=.93$, 8차 $\alpha=.91$ 로 확인되었다.

2.2.2 아버지의 양육행동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년)의 양육태도를 확인하는 62문항을 사용하였다. 양육행동은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위적 양육행동은 애정, 관여(11문항), 이성/유도(7문항), 민주적 관계(5문항), 친절/편안함(4문항)의 4개 하위요인,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화내기(4문항), 처벌(6문항), 비이성적 벌주기 전략(6문항), 지시(4문항)의 4개 하위요인, 허용적 양육행동은 일관성의 부족(6문항), 방관(4문항), 확신(5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일관성의 부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방관 중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 확신 중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을 제거하고 분석을 하였다. 2문항을 제거한 이유는 2문항을 제거 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였다. 내

적일관성 신뢰도는 애정, 관여 $\alpha=.86$, 이성/유도 $\alpha=.75$, 민주적 관계 $\alpha=.72$, 친절/편안함 $\alpha=.74$, 화내기 $\alpha=.69$, 처벌 $\alpha=.85$, 비이성적 벌주기 전략 $\alpha=.73$, 지시 $\alpha=.53$, 방관 $\alpha=.67$, 확신 $\alpha=.69$ 로 확인되었다.

2.2.3 자녀의 문제행동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년)의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하는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원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보호자가 각 문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 중 하나로 응답한 결과이다[21].

2.2.4 자녀의 학교적응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년)의 학교적응 척도(School adjustment inventory) 35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11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5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학교생활적응 $\alpha=.95$, 학업수행적응 $\alpha=.94$, 또래적응 $\alpha=.94$, 교사적응 $\alpha=.83$ 으로 확인되었다.

2.3 분석 방법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panel.kicce.re.kr>)에서 원시자료를 다운 받아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Mplus 7.4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우울, 아버지의 양육행동, 자녀의 학교적응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에 기초하여 검증하였다. 둘째,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우울 변화 특성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였다. 잠재계층성장분석은 무변화 모형, 1차 함수(linear) 모형, 2차 함수(quadratic) 모형 비교를 통한 최적의 변화 추정 모형을 선택한 후 진행하였다. 셋째, 잠재집단에 따라 2년 후의 아버지 양육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버지의 특징을 4차년도(2011년), 자녀의 특징을 10차년도(2017년)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연령은 20대 45명(3.8%), 30대 900명(76.8%), 40대 204명(17.4%), 50대 3명(3%), 무응답 20명(1.7%)이며, 아버지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6명(5%), 고등학교 졸업 305명(26.0%), 전문대 졸업 (3년제 이하 기능대학) 253명(21.6%), 대학교 졸업 (4년제 이상) 491명(41.9%), 대학원 졸업 112명(9.5%), 무응답 5명(5%)이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551명(47.0%), 여아 539명(46.0%)이며, 월령은 110개월 54명(4.6%), 111개월 176명(15.0%), 112개월 291명(24.8%), 113개월 309명(26.4%), 114개월 177명(15.1%), 115개월 41명(3.5%), 116개월 20명(1.7%), 117개월 9명(8%), 무응답 95명(8.1%)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72)

Variables	Category	N	%
Fathers' age (yr)	23-29	45	3.8
	30-39	900	76.8
	40-49	204	17.4
	50-51	3	.3
	Nonresponse	20	1.7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6	.5
	High school graduate	305	26.0
	College graduate	253	21.6
	University graduate	491	41.9
	Master/doctoral	112	9.5
Nonresponse	5	.5	
Child's gender	Male	551	47.0
	Female	539	46.0
	Nonresponse	82	7.0
Child's age (Months)	110	54	4.6
	111	176	15.0
	112	291	24.8
	113	309	26.4
	114	177	15.1
	115	41	3.5
	116	20	1.7
	117	9	.8
Nonresponse	95	8.1	

Table 2. Model fit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Model	χ^2	df	CFI	TLI	RMSEA	SRMR	Mean		
							Intercept	Linear	Quadratic
No growth	42.924***	13	.979	.983	.044 (.030-.059)	.044	1.858***		
Linear	20.268*	10	.993	.993	.030 (.010-.048)	.029	1.846***	.006	
Nonlinear	12.048	6	.996	.993	.029 (.000-.053)	.023	1.864***	-.027	.008*

* p<.05, ** p<.01, *** p<.001

3.2 아버지 우울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 구분

아버지 우울에 대한 최적의 변화 추정 모형을 확인한 결과, Table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차 함수 모형이 무변화 모형과 1차 함수 모형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잠재계층성장분석은 2차 함수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잠재계층성장분석 시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분류의 질,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계층 수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26 재인용). Table 3에 제시되어 있듯이 3계층 모형이 최적의 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3계층 모형은 평균 사후확률이 .88 이상으로 높은 분류 정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개 잠재집단의 특징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잠재집단1은 분석대상 중 101명(8.6%)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은 2.677(p<.001), 선형변화율 .215(p<.05), 2차변화율 -.044(p<.05)로 나타났다. 잠재집단1은 5년 동안 계속 가장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며,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7년까지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자녀 출생 후 8년부터 감소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수준 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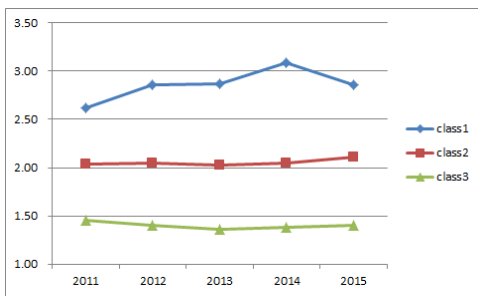
잠재집단2는 분석대상 중 593명(50.6%)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은 2.041(p<.001), 선형변화율 -.047(p>.05), 2차변화율 .015(p<.05)로 나타났다. 잠재집단2는 5년 동안 계속 중간 수준의 우울을 보이며,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7년까지 우울 수준의 변화가 없다가 자녀 출생 후 8년부터 변화가 크지 않지만 증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3은 분석대상 중 478명(40.8%)이 포함되었으며, 초기값은 1.468(p<.001), 선형변화율 -.061(p<.05), 2차변화율 .013(p<.05)로 나타났다. 잠재집단3은 5년 동안 계속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며,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6년까지 우울 수준이 감소하다가 자녀 출생 후 7년부터

Table 3. Results of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odel	Log likelihood	AIC	BIC	SABIC	Entropy	LMR (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1	-6060.991	12137.983	12178.514	12153.104	N/A	N/A	N/A	100					
2	-5529.909	11083.817	11144.615	11106.498	.730	.0000	.0000	67.7	32.3				
3	-5347.868	10727.735	10808.799	10757.977	.752	.0000	.0000	50.6	8.6	40.8			
4	-5321.639	10683.278	10784.607	10721.080	.773	.0814	.0000	49.9	10.9	38.0	1.2		
5	-5289.250	10626.499	10748.095	10671.862	.790	.0869	.0000	37.9	9.2	48.7	1.4	2.8	

터 변화가 크지 않지만 증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 Class 1: high-changing group, Class 2: middle-low changing group, Class 3: low-low changing group

Fig. 1. Profile plot of latent classes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Quadratic
1	2.677***(.098)	.215*(.091)	-.044*(.021)
2	2.041***(.033)	-.047(.027)	.015*(.006)
3	1.468***(.033)	-.061*(.027)	.013*(.006)

* p<.05, ** p<.01, *** p<.001

3.3 잠재집단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 차이 검증

다변량분산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아버지 우울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집단에 따라 아버지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첫째, 잠재집단에 따라 권위적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ilks's $\Lambda=.941$, $p<.001$). 단변량 분석결과,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이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과 고수준 변화형 집단보다 애정, 관여, 친철/편안함, 민주적 관계 양육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성/유도 양육행동은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이 중수준 저

변화형 집단보다 양육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잠재집단에 따라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ilks's $\Lambda=.935$, $p<.001$). 단변량 분석결과, 고수준 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이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화내기, 처벌,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 지시 양육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three latent profiles representing father's parenting practices

	Latent classes	N	M	SD	
					1
Authoritative	Warmth & involvement	1	81	3.52	.49
		2	515	3.69	.47
		3	415	3.87	.50
	Reasoning/induction	1	81	3.54	.43
		2	515	3.56	.46
		3	415	3.65	.50
	Democratic participation	1	81	3.42	.48
		2	515	3.56	.51
		3	415	3.72	.50
Good natured/easy going	1	81	3.49	.55	
	2	515	3.68	.54	
	3	415	3.88	.55	
Authoritarian	Verbal hostility	1	82	2.61	.61
		2	515	2.52	.58
		3	419	2.29	.63
	Corporal punishment	1	82	2.11	.71
		2	515	2.00	.67
		3	419	1.85	.66
	Non-reasoning, punitive strategies	1	82	2.16	.56
		2	515	2.13	.54
		3	419	1.88	.50
Directiveness	1	82	3.14	.47	
	2	515	3.00	.51	
	3	419	2.89	.56	
Permissive	Ignoring misbehavior	1	83	1.84	.59
		2	516	1.80	.52
		3	417	1.57	.51
	Self confidence	1	83	2.82	.58
		2	516	2.53	.59
		3	417	2.19	.64

※ Class 1: high-changing group, Class 2: middle-low changing group, Class 3: low-low changing group

셋째, 잠재집단에 따라 허용적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ilks's $\Lambda=0.885$, $p<.001$). 단변량 분석결과, 고수준 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이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방관, 확신 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Multiple comparisons of three latent profiles representing father's parenting practices

IV	DV	Multivariate	F	df	Tukey HSD
Latent classes	Warmth & involvement	Wilks's $\Lambda=0.941^{***}$	25.08***	2	①<②<③
	Reasoning/induction		4.79**	2	②<③
	Democratic participation		17.18***	2	①,②<③
Latent classes	Good natured/easy going	Wilks's $\Lambda=0.935^{***}$	25.99***	2	①<②<③
	Verbal hostility		20.50***	2	③<①,②
	Corporal punishment		8.59***	2	③<①,②
Latent classes	Non-reasoning, punitive strategies	Wilks's $\Lambda=0.885^{***}$	28.27***	2	③<①,②
	Directiveness		9.36***	2	③<①,②
Latent classes	Ignoring misbehavior	Wilks's $\Lambda=0.885^{***}$	24.77***	2	③<①,②
	Self confidence		56.00***	2	③<②<①

* $p<.05$, ** $p<.01$, *** $p<.001$

3.4 잠재집단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학교적응 차이 검증

아버지 우울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집단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잠재집단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016, $p<.01$). 단변량 분석결과, 고수준 변화형 집단,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 순으로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수준 변화형 집단이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집단에 따라 자녀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illai's Trace=.032, $p<.05$). 단변량 분석결과,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이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three latent profiles representing problematic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

		Latent Classes	N	M	SD
Problematic behavior	Internalizing problems	1	89	4.99	7.27
		2	548	3.69	4.42
		3	445	2.94	4.10
	Externalizing problems	1	89	4.53	7.75
		2	548	3.75	4.34
		3	445	3.13	4.86
School adjustment	School adjustment	1	38	4.11	.94
		2	256	4.21	.82
		3	192	4.37	.71
	Academic adjustment	1	38	3.90	.85
		2	256	3.93	.83
		3	192	4.19	.69
Relationship with peers	Relationship with peers	1	38	4.07	.79
		2	256	4.04	.82
		3	192	4.24	.66
	Relationship with teacher	1	38	3.96	.80
		2	256	4.02	.75
		3	192	4.21	.72

※ Class 1: high-changing group, Class 2: middle-low changing group, Class 3: low-low changing group.

Table 8. Multiple comparisons of three latent profiles representing problematic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

IV	DV	Multivariate	F	df	Tukey HSD
Latent classes	Internalizing problems	Pillai's Trace=.016**	8.41***	2	③<②<①
	Externalizing problems		3.78*	2	③<①
Latent classes	School adjustment	Pillai's Trace=.032*	3.10*	2	
	Academic adjustment		6.62**	2	②<③
	Relationship with peers		3.95*	2	②<③
	relationship with teacher		4.26*	2	②<③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8년까지의 아버지의 우울 변화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잠재집단에 따라 2년 후의 아버지 양육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첫째, 2차 함수 모형에 기초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아버지 우울의 변화 특성을 확인한 결과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8년까지의 아버지의 우울은 3개의 잠재집단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5년 동안 계속 가장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며,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7년까지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자녀 출생 후 8년부터 감소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수준 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01명(8.6%)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5년 동안 계속 중간 수준의 우울을 보이며,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7년까지 우울 수준의 변화가 없다가 자녀 출생 후 8년부터 변화가 크지 않지만 증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593명(50.6%)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잠재집단은 5년 동안 계속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며,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6년까지 우울 수준이 감소하다가 자녀 출생 후 7년부터 변화가 크지 않지만 증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478명(40.8%)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아버지 우울 변화 궤적의 특징은 잠재집단 내 우울 수준의 작은 변화는 있지만 큰 수준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를 둔 아버지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위한 맞춤형 우울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회 정책적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아버지 우울의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에 따라 2년 후(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은 고수준 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권위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수준 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이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24-25]. 부모가 권위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 때 자녀의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 27], 본 연구결과는 우울 수준이 높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 진단 결과에 기초한 권위적 양육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많은 활동 중심의 아버지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아버지 우울의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에 따라 2년 후(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고수준 변화

형 집단,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 순으로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준 변화형 집단이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경우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이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교적응 및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15-17, 28].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일 때 양육참여 및 적극적 상호작용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부정적 심리 특성이 자녀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적응과 문제행동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중단적 우울 수준이 자녀의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을 예측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녀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행동을 자주 보일 때 아버지의 우울 수준을 함께 고려한 상담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 우울의 횡단적 양상을 탐색한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8년까지의 아버지의 우울 변화 특성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 우울의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에 따라 2년 후(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양육행동 및 자녀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아버지의 우울 수준을 함께 고려한 상담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8년까지의 아버지의 우울 변화 특성을 확인하였는데, 영유아기 시기에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 출생 시기부터의 아버지 우울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아버지 자신뿐 아니라 자녀 발달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우울의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에 따른 아버지 양육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 우울의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다문화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 우울 변화 궤적과 자녀의 발달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W. H. Jeynes, "Meta-analysis on the roles of fathers in parenting: Are they unique?", *Marriage & Family Review*, Vol.52, No.7, pp.665-688, 2016.
DOI: <http://dx.doi.org/10.1080/01494929.2016.1157121>
- [2] E. Flouri, Z. Sarmadi, M. Francesconi, "Paternal psychological distress and child problem behavior from early childhood to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58, No.4, pp.453-458, 2019.
DOI: <http://dx.doi.org/10.1016/j.jaac.2018.06.041>
- [3] E. L. Möller, M. Nikolić, M. Majdandžić, S. M. Bögels,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xiety and its precursors in early childhood: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45, pp.17-33, 2016.
DOI: <http://dx.doi.org/10.1016/j.cpr.2016.03.002>
- [4] J. I. Yuh, "The association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with parenting behaviors during early childhood",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16, pp.65-90, 2019.
- [5] H. J. Lee, "The typology of changing preschoolers'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oppositional defiant behavior problems and elementary children executive dysfunctioning", *Global Creative Leader*, Vol.9, No.4, pp.143-162, 2019.
DOI: <http://dx.doi.org/10.34226/gcl.2019.9.4.143>
- [6] Y. H. Kim, "Maternal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from birth to 6 years and children's emotional control difficulty at first grade",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3, No.2, pp.29-46, 2019.
DOI: <https://doi.org/10.5718/kcep.2019.13.2.29>
- [7] D. G. Rosenthal, N. Learned, Y. H. Liu, M. Weitzman, "Characteristics of fathers with depressive symptoms",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Vol.17, No.1, pp.119-128, 2013.
DOI: <https://doi.org/10.1007/s10995-012-0955-5>
- [8] J. H. Sung, C. K. Kim, "The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in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on infant's anxiety/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2, No.1, pp.99-123, 2018.
DOI: <https://doi.org/10.5718/kcep.2018.12.1.99>
- [9] Y. S. Kim, J. S. Park, Y. H. Kim,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ng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depression on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5, No.1, pp.135-155, 2018.
- [10] Y. H. Choi, N. S. Park, J. Y. Park, R. R. Hwang,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the sociability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22, No.1, pp.1-19, 2019.
- [11] P. Kane, J. Garber,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Unique effects of fathers' symptoms and perceived conflict as a mediato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18, No.4, pp.465-472, 2009.
DOI: <http://dx.doi.org/10.1007/s10826-008-9250-x>
- [12] K. Cheung, J. Theule,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parenting behaviors: An updated meta-analysi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8, No.3, pp.613-626, 2019.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8-01316-1>
- [13] J. Bronte-Tinkew, K. A. Moore, G. Matthews, J. Carrano, "Symptoms of major depression in a sample of fathers of infants: Sociodemographic correlates and links to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Vol.28, No.1, pp.61-99, 2007.
DOI: <http://dx.doi.org/10.1177/0192513X06293609>
- [14] M. J. Kim, Y. H. Kim, "Family economic distress, paternal depression, marital relationship, controlling parenting style, and behavioral problems in young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9, No.5, pp.59-70, 2011.
- [15] J. I. Yuh, "The effects of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family relationship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1, No.3, pp.333-351, 2015.
- [16] H. G. Kim, "The effect of the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mother-child relationship-as perceived by the child on school adjust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50, No.6, pp.65-75, 2012.
DOI: <http://dx.doi.org/10.6115/khea.2012.50.6.065>
- [17] Y. L. Kim, K. H. Lee,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middle school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2, No.4, pp.125-143, 2011.
- [18] F. R. Niaraki, H. Rahimi, "The impact of authoritative, permissive and authoritarian behavior of parents on self-concept, psychological health and life quality", *European Online Journal of Natural and Social Sciences*, Vol.2, No.1, pp.78-85, 2013.
- [19] D. Baumrind,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 pp.1-103, 1971.
DOI: <http://dx.doi.org/10.1037/h0030372>

- [20] C. C. Robinson, B. Mandleco, S. F. Olsen, C. H. Hart,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Vol.77, pp.819-830, 1995.
DOI: <http://dx.doi.org/10.2466/pr0.1995.77.3.819>
- [21] <http://panel.kicce.re.kr>
- [22] C. K. Kim, M. K. Cho,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d early child's behavior problem using latent growth model: A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value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06, pp.33-56, 2017.
- [23] J. Y. Lee, M. K. Jang,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in parent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9, No.2, pp.1-16, 2009.
- [24] Y. M. Kim, H. N. Song,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among paternal depression, a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9, No.3, pp.73-82, 2018.
DOI: <https://doi.org/10.5723/kics.2018.39.3.73>
- [25] J. Y. Jang, J. H. Kim, Y. H. Kim,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ing style on problem behaviors in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2, No.2, pp.79-107, 2011.
- [26] E. M. Yeon, H. S. Choi, "Exploring the latent profiles i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cceptance toward disability of the disabled to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3, pp.133-152, 2019.
- [27] S. L. Lee, "The effect of parenting styles on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nd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56, No.5, pp.461-472, 2018.
DOI: <http://dx.doi.org/10.6115/fer.2018.034>
- [28] S. Sweeney, A. MacBeth, "The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205, pp.44-59, 2016.
DOI: <http://dx.doi.org/10.1016/j.jad.2016.05.073>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